

TV

TV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Time, and Episode/Notes.

비 12월 24~25일 美 단독 콘서트

배우 겸 가수 비(본명 정지훈·27)가 3년 만에 미국 단독 공연을 펼친다.

2006년 12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저스호텔 내 콜로세움에서 단독 공연을 펼친 그는 12월 24~25일 같은 장소에서 다시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8월 일본,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세 번째 아시아 투어 '레전드 오브 레이니즘(Legend of Rainism)'의 하나로 열린다.

레이튼 관계자는 "셀린 디올, 엘튼 존 등 유명 팝 스타들의 공연으로 유명한 시저스호텔 내 콜로세움에서 단독 무대를 준비 중"이라며 "레전드 오브 레이니즘 투어의 이벤트적인 성격을 띤다. 2006년 이 공연을 함께 한 스타프의 제안을 받았으며 계약서 사인만 남겨둔 상태"라고 밝혔다.

비의 미국 공연은 2006년 2월 뉴욕 매디슨스퀘어 가든 시어터, 같은 해 12월 라스베이거스 공연에 이어 이번이 단독 콘서트로는 세 번째, 소속사

는 이벤트 성격이라고 언급했지만, 비에게 미국 공연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로스앤젤레스, 하와이 등지에서 월드투어의 미국 공연이 취소돼 2년간 법적 분쟁에 시달린 끝에 다시 오르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이 공연에 앞서 비는 11월 영화, 12월 공연으로 올해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26일 할리우드 첫 주연작 '닌자 어쌔신'이 개봉을 앞둔 그는 국내에서 6일 언론시사회와 9일 아시아권 기자회견을 가진 뒤 11일 미국으로 떠나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지를 돌며 22일까지 영화 홍보 활동에 나선다. '닌자 어쌔신' 홍보를 위해 영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는 게 레이튼의 설명이다.

미국에서 귀국해 28~29일 홍콩, 12월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2월 둘째주 중국 상하이를 들며 아시아 투어를 이어간다.

레이튼은 "연말까지 영화와 공연 스케줄이 빽빽한데, 두 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a Go game tournament. Title: '반발을 부른 결단의 한수' (A decisive move that caused backlash). Includes a Go board diagram with numbered stones and a small inset diagram.

Advertisement for a fortune teller. Titl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Fortune told by the One Who Knows His Fate). Lists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for the day.

Table of EBS programs. Columns include program name, time, and a brief description.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굿모닝 잉글리쉬', '오하오우 니혼고', '니하오 쑹구위', and '한자 이야기'. Each column contains a lesson or tip in English, Korean, and Japanese/Chinese.